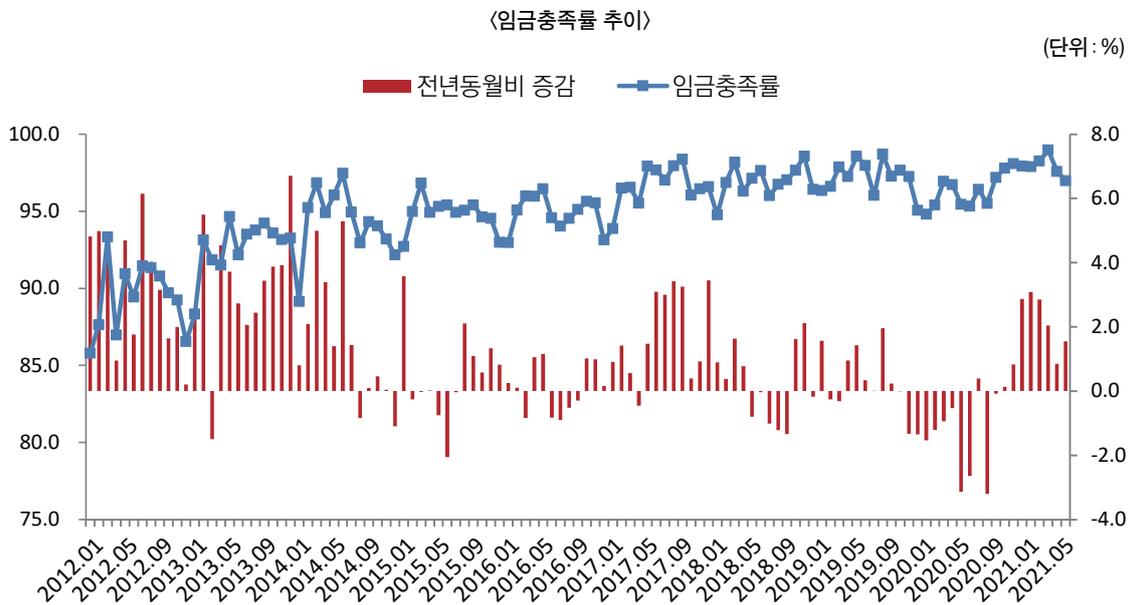


워크넷 구인구직DB를 이용한 2021년 4~5월 임금 동향

연보라 (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)

- 2021년 5월 신규 구인인원은 220천 명, 신규 구직건수는 390천 건, 평균 제시임금¹⁾은 207.6만 원, 평균 희망임금²⁾은 214.1만 원으로 전체 임금충족률은 97.0%로 나타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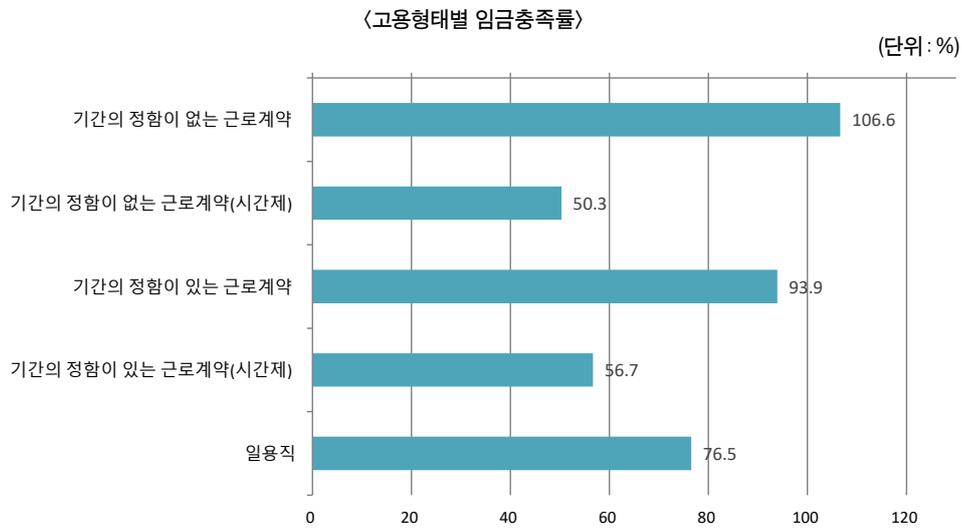
주 : 1) 임금충족률=(평균 제시임금/평균 희망임금)×100.

2) 임금에서 '분류불능'(응답자 오류) 및 특이값 제외함.

자료 : 한국고용정보원, 「워크넷 구인구직DB」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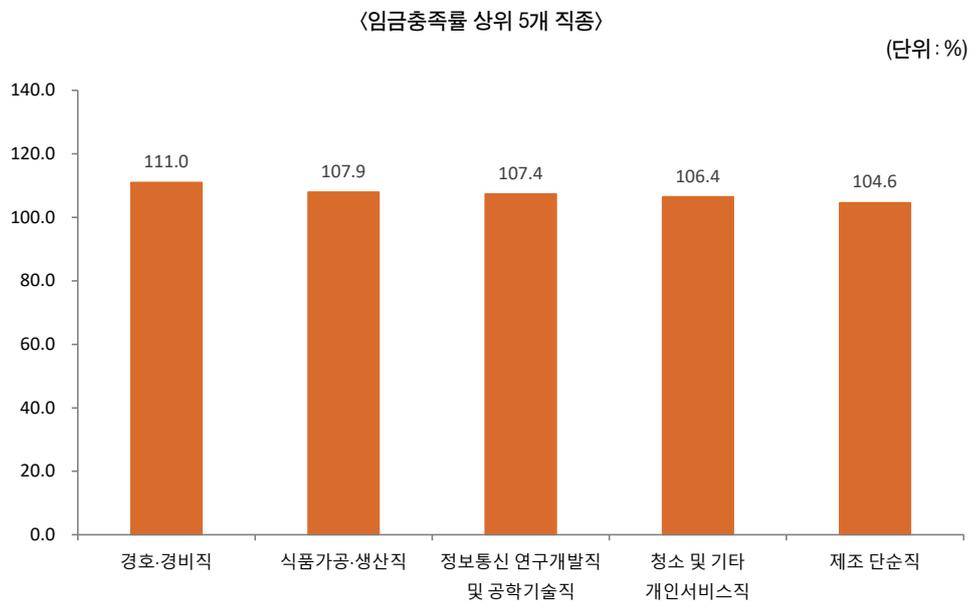
1) 구인업체가 구인서식에 기입한 취업조건으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제시하는 임금.
2) 구직자가 구직서식에 기입한 취업조건으로 구직자가 구인업체에 요구하는 임금.

- 고용형태별 임금충족률은 ‘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’ 상태에서 106.6%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, ‘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(시간제)’ 상태에서 가장 낮은 수치(50.3%)를 기록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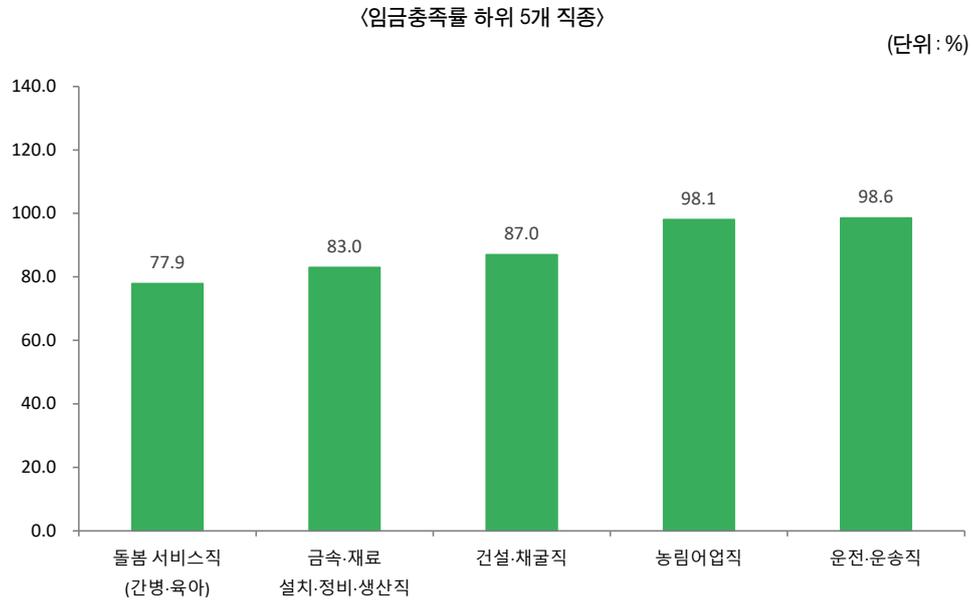
주 : 1) 임금충족률=(평균 제시임금/평균 희망임금)×100.
 2) 임금에서 ‘분류불능’(응답자 오류) 및 특이값 제외함.
 자료 : 한국고용정보원, 「워크넷 구인구직DB」.

- 직종별로 임금충족률이 높은 상위 5개 직종을 살펴보면 ‘경호·경비직’이 111.0%로 가장 높고, 다음으로 ‘식품가공·생산직’, ‘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’, ‘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’, ‘제조 단순직’ 순으로 나타남.



주 : 1) 임금충족률=(평균 제시임금/평균 희망임금)×100.
 2) 임금에서 ‘분류불능’(응답자 오류) 및 특이값 제외.
 3) 직종별 구인신청, 신규구직 규모 1천 건 이상 기준.
 4) 2018년 1월부터 「한국고용직업분류 2018」 개정 적용.
 자료 : 한국고용정보원, 「워크넷 구인구직DB」.

- 반면 임금충족률이 낮은 하위 5개 직종을 살펴보면 ‘돌봄 서비스직(간병·육아)’이 77.9%로 충족률이 가장 낮았으며, 그 밖에 ‘금속·재료 설치·정비·생산직’, ‘건설·채굴직’, ‘농림어업직’, ‘운전·운송직’ 등도 순위가 낮게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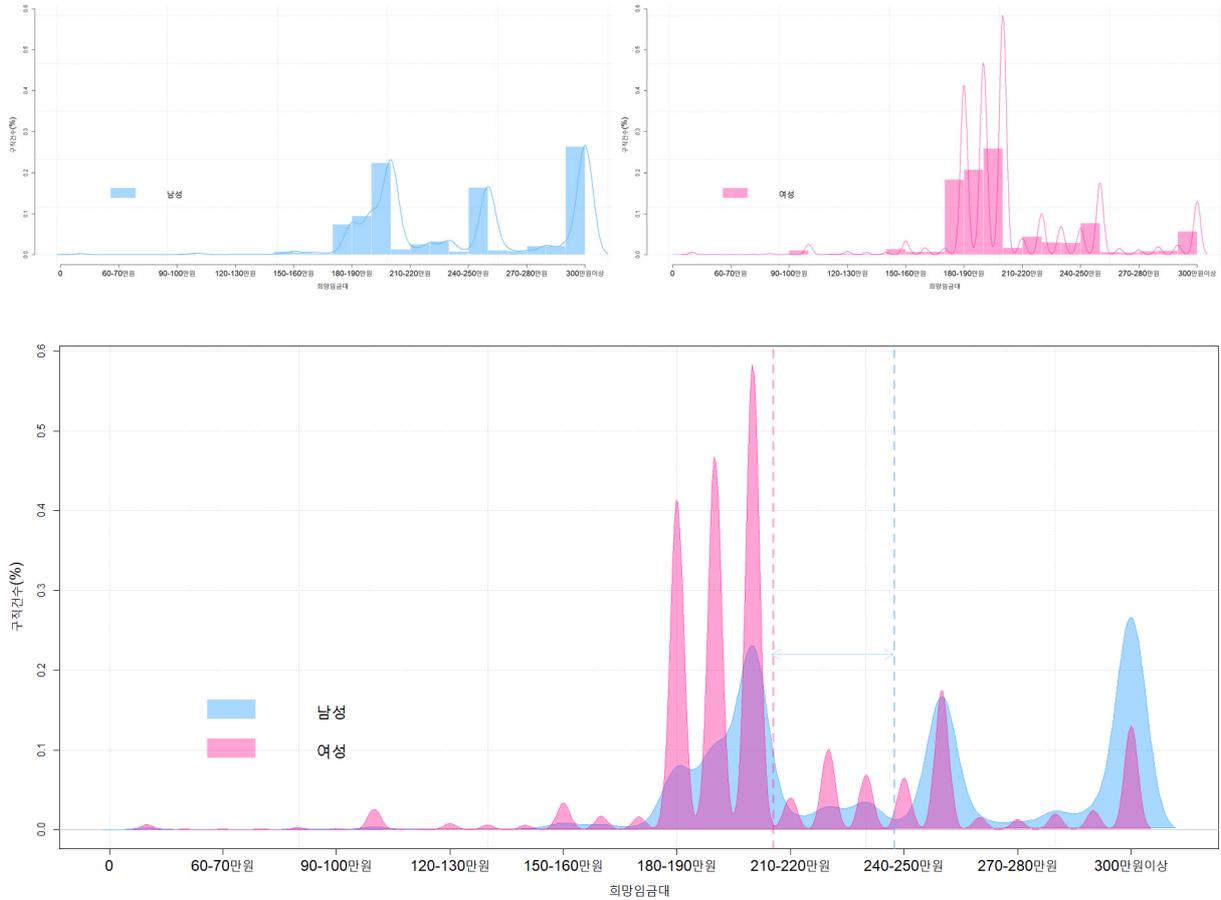


주 : 1) 임금충족률=(평균 제시임금/평균 희망임금)×100.
 2) 임금에서 '분류불능'(응답자 오류) 및 특이값 제외.
 3) 직종별 구인신청, 신규구직 규모 1천 건 이상 기준.
 4) 2018년 1월부터 「한국고용직업분류 2018」 개정 적용.
 자료 : 한국고용정보원, 「워크넷 구인구직DB」.

2021년 4월 기준 속성별 희망임금 분포 비교

- 임금대별 구직건수 비율을 통해 본 희망임금 분포는 성별,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임.
 - 성별 희망임금 분포를 보면 남성의 희망임금은 250만 원, 특히 300만 원 이상의 고임금대에 다수 분포한 데 반해, 여성의 희망임금은 180~210만 원 구간에 구직 빈도가 집중되어 있음. 이 그림의 실선으로 나타낸 분포 평균을 보면 남성의 희망임금 분포 평균은 240만 원대에, 여성의 희망임금 분포 평균은 210만 원대에 위치함.

(성별 희망임금 분포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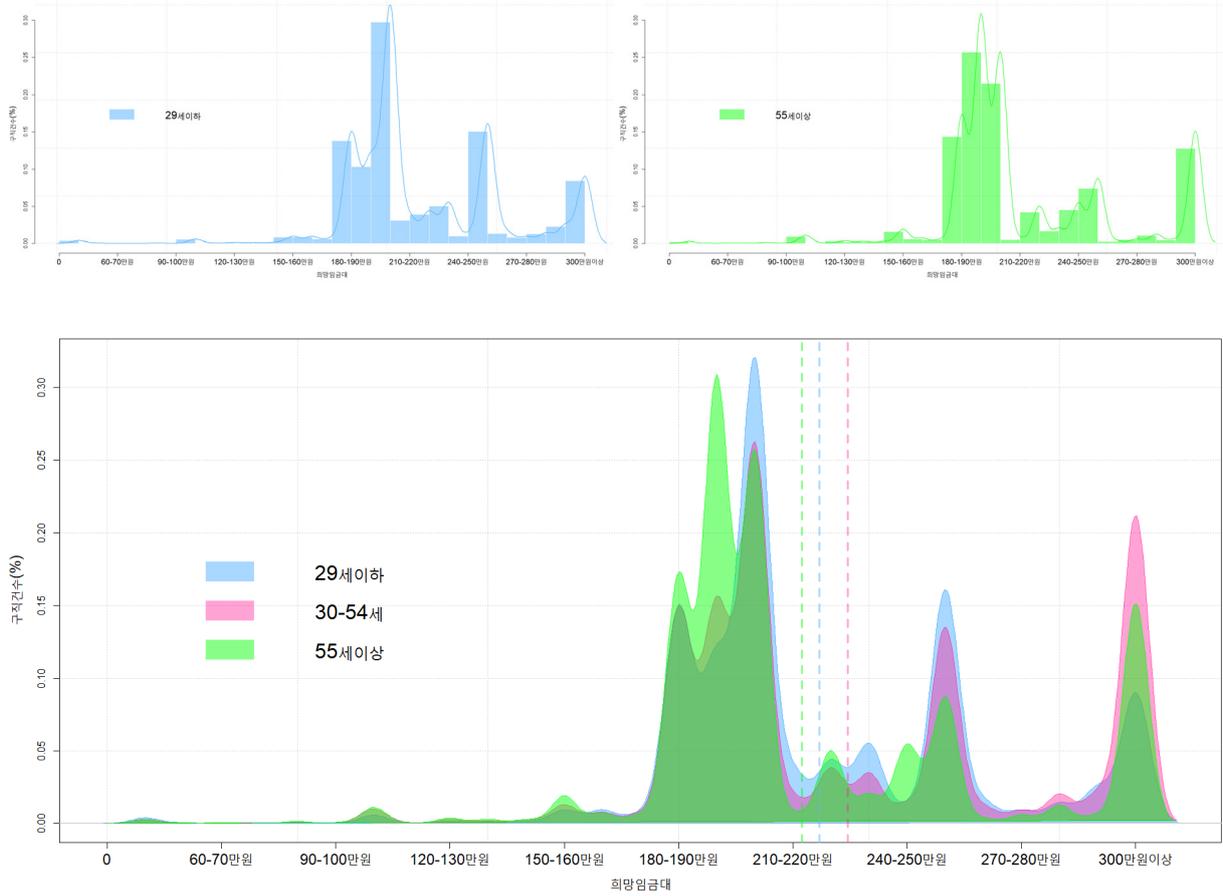
주 : 1) 2021년 4월 기준, 근로시간 및 고용형태를 구분하지 않은 전체 임금 데이터임.

2) 희망 '월'임금이며, '분류불능(응답자 오류)' 및 특이값 제외.

자료 : 한국고용정보원, 「워크넷 구인구직DB」.

- 구직자 연령대별 희망임금 분포는 30~54세 > 29세 이하 > 55세 이상 순으로 나타남. 30~54세 연령층의 희망임금 분포 평균은 230만 원대로 나타났으며, 29세 이하 청년층 및 55세 이상 연령층의 희망임금 분포 평균은 220만 원대에 위치함.

〈연령대별 희망임금 분포〉



주 : 1) 2021년 4월 기준, 근로시간 및 고용형태를 구분하지 않은 전체 임금 데이터임.

2) 희망 '월'임금이며, '분류불능'(응답자 오류) 및 특이값 제외.

자료 : 한국고용정보원, 「워크넷 구인구직DB」.